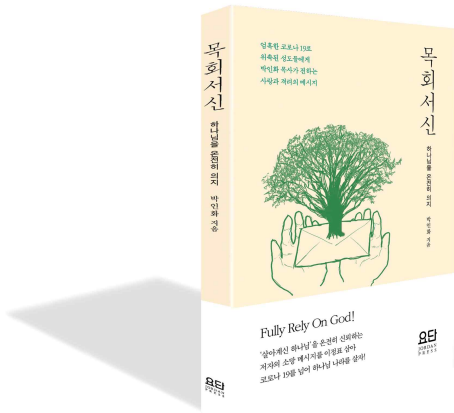




목회서신

저자	박인화	분야	목회, 신앙일반, 간증
판형	133x197mm(무선)	편집	02-2643-9155
면수	172면	보급	02-2643-7290
정가	12,000원		02-2643-1877(F)
ISBN	978-89-350-1913-7 03230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초판발행	2021년 9월 28일		07238

■ 책 소개

- [목회서신]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2019, 요단)의 저자인 뉴송교회 박인화 목사의 두 번째 저서로 엄혹한 코로나 19로 위축된 성도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쓰기 시작한 서신 일부를 간추려 묶은 책이다. 저자는 팬데믹 상황에서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공동체의 가족들이 고난 가운데 희망의 줄을 놓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인 본서를 읽다 보면 저자의 따뜻한 목양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할 수만 있다면,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한 목자의 고민과 열정이 읽힌다.
- 모든 서신을 관통하는 저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영원한 소망의 약속이며, 승리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 본서는 단지 성도 개인에 대한 위로와 회복에만 초점 맞추어 있지는 않다. 성도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져 교회의 존재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 사명을 교회 차원에서 실천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재생산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섬기고 있다.
- 탁월한 스토리텔러로 알려진 박인화 목사 특유의 스토리텔링은 일상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독자들의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얼굴을 향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힘이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장거리 마라톤과 같이 고통스럽기도 했다는 저자는

성도들을 섬기는 부모의 마음, 목자의 심정으로 써 내려간 서신을 통해 성도들이
혼돈과 불안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 저자: 박인화

Patten University(B.A.)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M.Div & MACE)

Dallas Baptist University(Doctor of Divinity)

현재 미국 달라스 뉴송교회 담임 목사

미 남침례교단 한인총회 교육부 이사장

미 남침례교단 텍사스 주 총회(BGCT)의 문화참여위원회

(Cultural Engagement Committee) 실행위원

침례교를 대표하는 설교자이자 탁월한 스토리텔러

현재 박인화 목사와 뉴송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 사명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부탄과
남아공의 미전도종족(Unreached Unengaged People Group)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재생산하는 사역에 헌신하여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요단, 2019)이 있다.

■ 목 차

서문 ... 006

서신 #1 ... 012 서신 #11 ... 088

서신 #2 ... 020 서신 #12 ... 096

서신 #3 ... 028 서신 #13 ... 102

서신 #4 ... 034 서신 #14 ... 108

서신 #5 ... 044 서신 #15 ... 118

서신 #6 ... 052 서신 #16 ... 126

서신 #7 ... 060 서신 #17 ... 136

서신 #8 ... 068 서신 #18 ... 144

서신 #9 ... 074 서신 #19 ... 150

서신 #10 ... 082 서신 #20 ... 164

■ 책 속에서

● p. 13

사람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자는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대하 7:14).

● p. 22

과거와 현재 상황에 전혀 영향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과거나 코로나 19의 피해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 p. 31

예수님처럼 “인자가 온 것은 … 섬기려 하고…” 섬기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며(요 12:26)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류를 섬기려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을 섬기십시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 섬기는 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p. 40

외출이 제한을 받는 지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은 눈앞에 있는 장애물로 인해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속사람의 근육을 키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도전을 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계획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 p. 54

사람은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잃은 것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종을 쳤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종이 아니듯, 고백 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일 수 없습니다

● p. 86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요즘 같은 상황에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배움과 훈련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이웃을 돕는 기회를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 두드리고 있는 기회를 손을 뻗어 잡으십시오. 기회의 첫인상은 초라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숨겨진 기회를 지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 p. 93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의 현상 중 하나로 적그리스도가 많아질 것을 언급했습니다(요한1서). “적”이란 “반대한다”against는 뜻이지만 “대신에”instead of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은 말세의 현상 중 하나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경고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중심에 둘 수 있겠습니까?

● p. 98

신앙이란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거나 수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그분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못생긴 개구리FROG 속에 숨긴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 p. 119

예수님의 손에서 망가지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진흙을 망가트리기 때문입니다

● p. 132

자녀들이 악과 죄가 범람한 세상이라는 바다에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말씀이라는 ‘역청’과 기도라는 ‘진’을 칠해야 합니다!

● p. 147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심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지켜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 p. 153

교회의 위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적, 재정적 자원을 교회를 위해서만 쓰는 것입니다! 위의 경고는 100번, 1,000번을 반복해서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자원을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마음이 작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13 훈련은 학습과 실습을 병행하는 가운데 도심의 코너스톤 교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홈리스, 미혼모, 출소자들을 섬기는 것은 교회의 건강(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에 필요한 비료 역할을 합니다.